



Market Index <17일>		2분
코스피지수	2610.42	+19.37
코스닥지수	768.48	+12.16
회사채금리 (AA-, 연%)	3.215	+0.007
국고채금리 (3년, 연%)	2.623	+0.012
환율(한-달러)	1441.70	-1.80
금리(미국 연방준비제도)	5.50	-0.25

※ KCB 증권 투자를 뜻함! 개비증권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hankyung.com

제19235호 | 대표전화 02) 360-4114

한국경제

K방산 수주 100兆 ... 3년치 일감 찾다

<잔액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사상 처음 100조원(약 14억 달러)을 돌파했다. 1975년 M1 소총 탄약 6억원(약 800만 달러)에 수출한 지 50여 년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에 나선 만큼 'K방산'을 찾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A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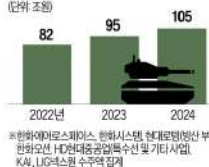
17일 방산산업계에 따르면 방산 부문 실적만 따로 떼어내 공개하는 7개 대기업의 작년 말 기준 수주 잔액은 모두 105조6000억원이었다. 기업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32조4000억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24조7000억원),

7대 방산기업, 작년 첫 돌파

한화에어로 32조, LIG 20조 러-우크라이나 이후 대폭 증가
각국 군비 경쟁 - 주문 더 늘 듯

LIG넥스원(20조1000억원), 한화시스템(8조3500억원), 한화오션(7조5000억원), HD현대중공업(4조5000억원), 현대로템(3조9000억원) 등이다. 7개사의 수주 잔액은 2023년(94조7000억원)보다 11.7% 늘었다. 2021년(5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두 배 됐다. 덕분에 7대 방산 기업은 3-5년치 일감을

주요 7개 방산기업 수주잔액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현대로템(당첨 부문),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특수신 및 기타사업, KAI, LIG넥스원 수주잔액 집계)
확보한 상태다. 방산기업의 갭을 채운 일등 공신은 수출이다. 2020년 30억달러(약 4조 3000억원)이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95억달러(약 13조 7000억원)로 수직 상승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며 자주

포전차 등 재해석 무기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대체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10-20년 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방산 강국'인 독일 등 유럽 기업이 군비 감축 움직임에 발맞춰 생산력을 줄인 틈을 K방산이 파고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 방산기업의 영역은 육·해·공을 넘나들며 유럽부터 중동, 동남아시아, 미국 등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다. LIG넥스원은 지난해 9월 이라크와 3조 7000억원 규모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수출 계약을 맺었고, KAI는 팔라핀과 1조원 규모의 FA-50 전투기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국 군함 발령을 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원철/김영희 기자

문화·소비 新인류 '파워시니어'가 온다



파워시니어 '빅웨이브'

한-미일 베이비부머 보유 자산 두둑하고 교육 수준도 높아 취미·건강에 '돈돈'

직업 전문성 활용해 지역사회에도 기여

최근 핫한 강인 인제의 한계령베이스캠프 강당. 이 지역 일대에서 발생한 멸종위기종 산양(산양)의 집단 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도한 사람은 은퇴한 서울대 교수인 인근 한계령 산양보호자이다. 기존 생활을 하다가 문제의 심각성을 듣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산양보호를 총장인 이종구 국립암센터 이사장(전 서울대 의대 교수)은 '산행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려고 모였지만 모두가 각 분야 전문가이다 보니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설 때가 많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A10, 11면

경제력을 갖추고 교육 수준도 높은 '파워 시니어'가 전 세계 소비와 문화의 주제로 급부상했다. 12차 베이비부머가 주축인 파워 시니어는 과거 자녀에 의존해 병수발을 받았던 전통적 노년의 모습과 달리 취미와 건강,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연다. 요가와 필라테스, 피부미용 등 최대 고객이 된 지 오래다. 은퇴 직 앞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기여하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기업도 파워 시니어의 구매력과 달라진 패턴에 주목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미국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은 82조4800억 달러(약 12경원)로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51.6%에 달한다. 일본 총부성은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비가 100조 엔으로 일본 전체 소비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1000만 명이 육박하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10년간 법정 정년(60세)을 맞아 단계적으로 은퇴한다.

연재=권규진 기자/서희교 기자

16회 한국IB대상 KB증권 종합대상

지난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올린 투자은행(IB)에 KB증권이 선정됐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가 후원한 '제16회 한국IB대상'에서 KB증권이 주식발행(ECM), 채권발행(DCM), 인수금융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종합대상(금융위원장상)을 받는다.

▶관련기사 A20면

주식발행(ECM) 부문은 한국투자증권, 채권발행(DCM) 부문은 NH투자증권이 수상자로 뽑혔다. 기업공개(IPO) 부문은 미래에셋증권이, 인수금융 부문은 삼성증권이 상을 받는다.

인수합병(M&A) 부문에서는 삼일PwC(재무자문),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률자문), 삼정KPMG(회계자문)가 수상했다.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삼성SRA자산운용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UBS와 한원컴퍼니는 '베스트딜'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영욱 기자

Biz Journal ▶B1~8면
한국형사회공헌 ▶C1~4면
이슈 & ▶D1~4면



중테크기업 수장들 불러 모은 시산평 사모이 창업자 레미콘 회장(가운데)이 17일 중국 민영기업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산평 중국 국가주석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미지센서 반도체 기업 웨이얼반도체의 위닝광 장광자(왼쪽), 사이버보안 기업 지우 360의 지상준 장광자(오른쪽)를 비롯해 화웨이, BYD, CATL, 딥시크 등 중국 주요 테크기업의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관련기사 A22면

박현주의 경고 "테슬라·양자株 고평가"

서학개미(해의 주시에 투자하는 개인)가 테슬라와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을 연일 끌어대는 가운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주가에 거품이 지나치게 컸다"고 경고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A4면

박 회장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특정 테마주에 과도하게 몰리고 있

다"며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다. 이날 기준 국내 투자자의 테슬라 투자 금액은 216억달러(약 3조 1000억원)에 달한다. 압도적 1위로, 2위 엔비디아(1124억달러)와 3위 애플(469억달러)을 합친 것보다 많다. 하지만 주가 수익비율(PER)이 130배에 달하다 보

니 일각에서 고평가는란이 제기된다. 박 회장은 "테슬라는 중국 BYD, 지리자동차 등으로부터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언제든 작은 계기로도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증권가의 새로운 테마주로 떠오른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대해서도 "아직 실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최민수 기자

'우스터 특별展' 독자 여러분 모십니다

신규·자동차체 변경 고객 - 인삼파 가장 작품 감상

한국경제신문은 신규 구독자와 구독료를 분사 자동차로 변경한 독자를 우스터미술관 컬렉션 특별전에 특별 초대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인삼파, 모네에서 미국으로: 빛 바다를 건너다' (포스터)라는 주제로 미국 우스터미술관이 소장한 인삼파와 거점의 엄선된 원화 83점을 국내 최초로 공개합니다. 초대 대상은 이벤트 기간 내 구독료 자동차를 신청한 이들로, 추첨을 통



해 총 100명(1인 2장)에게 초대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경멤버십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 2025년 2월 18-28일
•관람 기간: 2025년 2월 15일-5월 26일
•장소: 다현대 서울 ALTI
•대상: 분사 자동차로 신규 신청한 모든 독자(모바일환경 선상 독자 포함)
•당첨지 발표: 3월 5일(수) 한경멤버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발송
•이벤트 응모: 별도 응모 없이 해당 기간 신규 신청 독자 전원 대상에 추첨
•문의: 1577-5454 한국경제신문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센스는 함께!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우리 같이 할래요?

난방 할 때는 문을 꼭 닫기!!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도 준수하기!!

안쓰는 제품 전원 끄기!!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센스!